

고은 불교 대하소설

이승의 재 저승의 씨

끝 내 불이와 합두는 불타버린 나승 최초의 갯머리 가운데서 한갓 벼로 남았다. 벼조차도 고열(高熱)의 불구덩이에서 철저히 바스라진 상태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런 참담한 흔적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뒤섞여서 따로 두 사람의 그것일 수 없었다. 실로 그들의 열린 그대로 둘은 하나가 되었는지 모른다.

인담은 넋을 놓았다. 다른 사람들도 으레 그래야 했던 것까지 그가 도맡아서 그러는 것처럼 거의 넋을 다 놓아버린 백치와도 같았다.

이승에 남긴 어떤 주부(呪符)였던가. 인담은 이런 두 스님의 최후가 살아있는 그들의 정수리를 쇠뿔치로 쳐서 하얀벼수를 뿌리게 만든 것이라고 여겼다. 죽은 두 사람이 살아있는 그들을 죽인 것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도록.

하지만 이런 폭행과도 같은 공적(狂的)이기까지 한 소신(修身)의 형식에서 인담이 지난날에 듣고 한 커로 빠져나갔던 소신공양의 그 비의(秘義)가 새삼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당나라 축현무후 시절 한 기구한 어린이가 출가하여 절간의 붉은 공양주를 은사로 삼은 신부님은 승려가 되어 살아가다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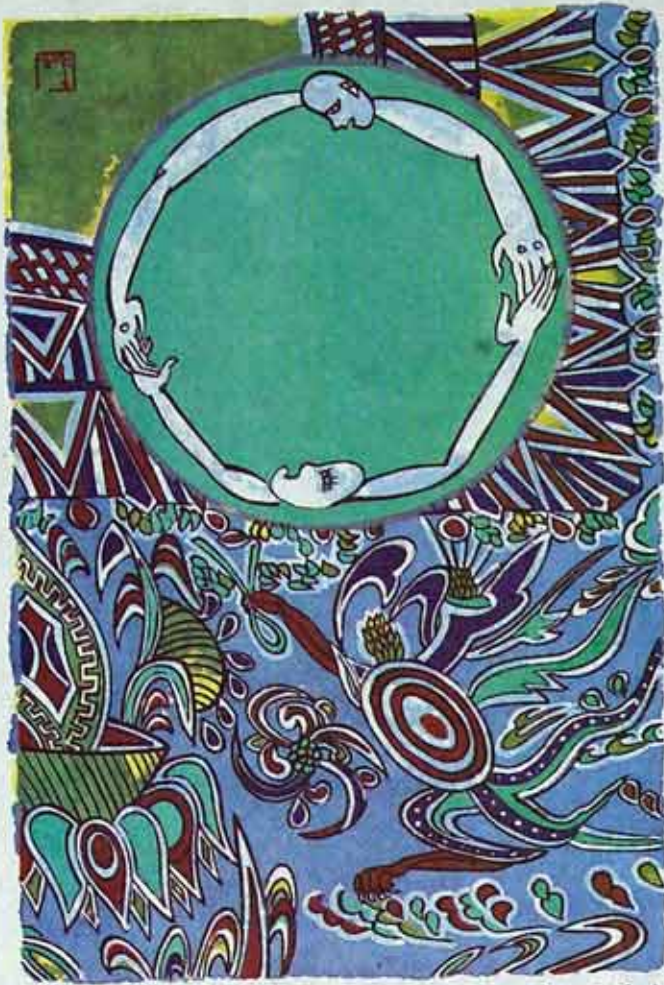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수미산

인담을 비롯해서 우녀 파현 그리고 수원 수월들이 그렇게도 많은 바닷물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 불타는 집 한채에 대해서 몇 번 물을 끼얹어보고는 그런 일로는 불을 잡는다는 사실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하였다. 그들은 밤을 등중 구르며 그 불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아니 그들의 도반(道伴)이 눈 앞에서 불 속에서 타죽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이 각각의 상상(心象)에 합당한 타격을 가하게 만들었다. 그들 자신도 거의 정상적이기 못하였다.

가장 냉철할 수 있는 우녀의 경우에도 "합두스님... 합두스님... 합두스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대며 입에 침을 담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것이었다.

이에 질세라 무욕도 도량의 대표인 인담 아야말로 맞닥뜨려 넋을 놓았다가 솟아나 있는 바위에 이마를 찧어대는 동안 그 피멍이 드는 아픔으로 진정 넘어 들어오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인담은 다른 사람보다 정상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의 은사가 세상을 떠나자 바로 그 은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바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하루에 한끼의 게 한 줌을 생식으로 먹기로 1년을 지내며 선정(禪定)에 들어 있었다. 신수(神秀)의 북종선(北宗禪)에서 일컫는 오직 한 가지 행(行)에 집기는 공부였다.

그런 뒤 그의 뜻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의해서 그의 알몸종어라에 삼긴 명주현을 밧발에서 어깨까지 감고 앉아있었다.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자신이 받아 마땅한 심판으로서의 자율이 바로 49일만의 선택인 것이다

그런 중에도 그는 선정에 들어있었다. 이 선정과 함께 명주로 감은 몸에 들기름을 부어 속속들이 배어들게 하는 것이었다.

이 기름붓기는 며칠만에 한번씩 반복되어 맞달이 지나는 동안 장본인은 거의 화석이 되어가는 몸과는 달리 그의 정신상태는 고조되어 어떤 규정에 다가가고 있었다.

바로 이런 상태의 기름이 배어들때로 배어든 명주 감긴 몸에서 유유히게 남겨진 얼굴은 이미 해골이 다 된 상태였는데 거

기어 불을 담은 화로를 띄워 물이 타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불이라고 해야 이미 화석이 되어버렸으므로 기를타는 냄새 맡고 는 어디 하나 화정의 악취가 나지 않았다.

그 몸은 그렇게 속살없이 타다가 멈춘 모습으로 남겨졌고 거기에 도금(鍍金)하여 그대로 금불(金佛)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 금불의 범명은 전해오지 않는데 미륵신앙의 백성들은 미륵이라 하였고 선거에서는 여래장(如來藏)이라 불렀으며 혹은 능가(楞伽)라고도 하였으니 어느 것이 그의 이름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이 사실을 떠올린 인담으로서 불이와 합두의 갑작스러운 소신의 죽음은 너무 비의례적(非禮儀的)이며 선적(禪的)인 대담성 때문에 맞받이나 오만이나 넘어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인담의 처지를 짐작한 우녀도 어느 만큼 재 넋을 찾아 인담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녀는 아주 힘없는 어조나마 농담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내 집이 없어졌으니 나무가지에나 걸터앉아야 하였어요."

이런 한탄은 수월의 것이었다. 그들이 배를 매어둔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삼에 오르자 거기에 별빛이 번뜩이는 눈물자국의 우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갈대장사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무욕도의 날은 다시 이어지는 것이었다. 다시 7일이 지나고 다시 7일이 지나기를 일곱번을 되었을 때였다.

바로 이 무렵 불이와 합두의 아뢰아식(阿뢰阿識)은 명도의 태산왕(泰山王)과 함께 있었다. 불이와 합두의 것이든, 그 누구의 것이든 그 아뢰아식이란 무엇이든, 한 손이 꽃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마리 짐승의 울부짖음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깊은 의식의 오지(奧地)에 있으나 그동안 살아온 자취나 세계의 온갖 현상을 다 아우르고 있어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佛)이 없는 식(識)이다.

또한 그것은 모든 현상이 펼쳐지는데 없어서는 안될 절대(絕對)의 바탕이므로 근본의 마음이 된다. 그래서 다 소장(所藏)한 식이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아뢰아식의 불이와 합두는 그들이 불타서 죽은 몸으로 그들이 살던 사바세계를 떠나지 49일이 되는 날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다. 하지만 태산왕의 심판은 이 심판과 똑같이 그 자신이 독단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는 바로 두 아뢰아식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이다.

이 말에 인담이 쓰겁게 웃음을 머금을 수 있었다.

"우녀스님에게 집이 없는 것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재 정신으로 붙이기까지 1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불이와 합두의 유골부스러기는 백지에 싸여 밀봉한채 큰방 밖의 임시로 만든 단(壇)에 안치하였다.

두 사람이 불구덩이에서 타버린지 이레가 되는 저녁에 배를 끌어내어 인담과 수월이 수월이 타고 멀리 나가서 거기서 바닷바람이 술술 불기 시작할 때 뿔뿔이 부서져서 풀을 낚았다.

아주 간단한 절차였다. 수월이 가루를 만졌던 손을 뿔뿔의 바닷물에 넣어 씻어버렸다. 뿔뿔머리를 돌려 심으로 돌아올 무렵은 재벌 어둑어둑하였다.

인담이 말하였다.

"49제도 부질없는 일이요. 오로지 두 영가(靈駕)는 길만한 곳으로 가고 있을 것이요."

"그래도 저는 지내 드려야지요."

라고 수월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두 영가는 재 같은 것도 다 태워버리고 간 것입니다."

"무정하기는!"

이라는 한탄은 수월의 것이었다.

그들이 배를 매어둔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삼에 오르자 거기에 별빛이 번뜩이는 눈물자국의 우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갈대장사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무욕도의 날은 다시 이어지는 것이었다. 다시 7일이 지나고 다시 7일이 지나기를 일곱번을 되었을 때였다.

바로 이 무렵 불이와 합두의 아뢰아식(阿뢰阿識)은 명도의 태산왕(泰山王)과 함께 있었다. 불이와 합두의 것이든, 그 누구의 것이든 그 아뢰아식이란 무엇이든, 한 손이 꽃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마리 짐승의 울부짖음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깊은 의식의 오지(奧地)에 있으나 그동안 살아온 자취나 세계의 온갖 현상을 다 아우르고 있어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佛)이 없는 식(識)이다.

또한 그것은 모든 현상이 펼쳐지는데 없어서는 안될 절대(絕對)의 바탕이므로 근본의 마음이 된다. 그래서 다 소장(所藏)한 식이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아뢰아식의 불이와 합두는 그들이 불타서 죽은 몸으로 그들이 살던 사바세계를 떠나지 49일이 되는 날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다. 하지만 태산왕의 심판은 이 심판과 똑같이 그 자신이 독단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는 바로 두 아뢰아식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저쪽에 여섯개의 문이 보일 것이다. 저 문을 지나면 여섯개의 세계가 있다. ...이 여섯개의 문 가운데서 어느 한 문을 너희 뜻대로 들어가거라. 너희가 선택한 길이 너희의 내세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섯개의 세계란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이다.

말하자면 이 여섯개의 세계 중의 하나에 자신의 뜻대로 가라는 것이 심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란 전혀 심판의 권위도 없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대로 바로 자신이 지은 것의 결과일진대 그것이 곧 심판이다.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자신이 받아 마땅한 심판으로서의 자율(自律)이 바로 49일만의 선택인 것이다.

그녀 합두 아뢰아식이 불이 아뢰아식에게 향기로서 말하였다.

"불이스님! 어디로 가립니까?"

"아니듣지..."

이렇게 머뭇거리기는 불이와 합두에게 다가갔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얼굴도 어떤 황제도 없는 영식(靈識)의 두 존재는 향기로서와 대화(對話)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영원한 동행자로 확인한 것이다. 이 우주 어느 곳에도 똑같은 업(業)과 그 자취의 결과에 의하여 세생생생(生生生)의 동행자가 되는 일은 어떤개의 중생 가운데 하나 밖에 없을만큼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다.

로 그런 회귀하기 짝이 없는 노릇을 그들은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었다.

"남쪽은 지옥계로 갔습니다만."

이라고 불이가 지옥을 내세웠다.

"그분은 다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수라국이 있어서 아수라를 거쳐서 수미산을 향하렵니다."

"그렇다면 나도 아수라로 가자겠지요. 나에게는 아수라국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불이와 합두에게 한마디 덧붙혔다.

"우리 그곳에 가서 실컷 싸움이나 합시다."

"호오 애욕이나 아수라국이나 다 빈 것입니다만... 실컷 싸운 나머지 재 손물자국이 온몸을 덮을 것입니다."

"하여 내 주머니 합두스님의 어깨를 쳐서 시켜낸 먼지가 들어 배새도록 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아수라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문은 아귀계의 문이었다. 그들이 잘못 들어간 일이야말로 그들의 아귀업이 아수라국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었던가.

단청·불상·평화·계급
* 문화재 단청기능 제992호 *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층 4번
■ 문의처 : 468-8329
■ 호출기 : 012-307-8329

박석언 합장

불교사적의 모든 것

불사 운주사

· 종로구 청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 단청초급법, 불상법, 신선기공 36동자, 생식법, 벽국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735-6795 · 6796
팩스 :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림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건 등 상임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족자, 주불, 열쇠고리 등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 02)795-4083
팩스 : 02)792-9659

천혜의 기도도량 **금수산 천진사**

단양 팔경의 하나인 구담봉, 옥선봉을 굽어보며 금수산 품에 안긴 천혜의 기도도량 천진사 함께 기도하며 이 국토를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려는 불제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는 도량입니다.

조용히 머물며 기도 정진하실 스님 (비구니 스님이나 연로하신 스님도 좋습니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당을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단양 천진사 : 0444-423-2085
서울 법천사 : 02-762-2204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남·남방, 최고급 사설과 여학원습습 원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정강의 책임지도 교수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 (이미 출국유학중)
■ 학위 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 202 유학비(기) 및 입학비용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 - 22:00 (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 - 18:00 일→10:00 - 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위 1C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중국 학원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화위 상사취위(명나라 체제) 관위 1670 개업원속출발

사찰인수 증설에 참여하실 분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청일중)
- 대지 주차장 300평 신축 모델 부지 1,000평 매도가 5억원
- 가든 휴게소 건물 2-3층 모델 증축 가능지
- 농산물·일용생활품 매장 가능지
- 주차장 도로부지 120평 포함

연락처 집(조선)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 불교인사·독지가 환영

범당 신축 협찬자 구함

· 1층주방 강변 진입도로면 빌딩지 요지
· 개명산 석굴암 유사체 시설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개 높이, 굵 50형
- 석가 5층탑 22자 높이
- 관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좌불상 5자 높이
- 유사체 2층 방 6) 35명형 * 1층 방 3)

· 대지 706평 도로 포장 시설지

- 원 3억 5천 원 사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할실 분 구함
- 향후 범당, 대웅전, 금속 유사체 및 신산각 증축 계획
- 시설사한 신축지 1,000평 내외 정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스님 독지가 세사할계할 운영하실 분 환영

명문대가집 현미버거기 비현

명문대가집 현미버거기 비현

2층도현미 (역기 아담)
3층도현미 (역기 슬라)
4층도현미 (역기 다람)
5층도현미 (역기 대락)
6층도현미 (역기 대락 슬라)
백미반도 (없는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 배달"

조선의 역사를 지키는
쌀바르거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